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15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다우 50,000 재탈환, S&P500은 7,500 첫 돌파

- 미국증시 상승: 다우 석 달만에 5만선 회복..나스닥·S&P500 '사상 최고'
- 미중 정상회담 관망세 속 AI 관련주가 상승 주도
- 주간 고용 지표 다소 부진..소매판매는 석달째 증가

Summary

미국증시 상승: 다우 5만선 회복..S&P500 7,500 돌파

5월 14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전일 시작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관망심리가 높은 가운데 주요 기술주 위주 강세로 상승 마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75% 상승한 50,063.46에 마감해 지난 2월 11일 이후 3개월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5만선을 회복함. S&P500 지수는 0.77% 상승한 7,501.24에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돌파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0.88% 상승한 26,635.22에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0.67% 상승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3.41% 하락한 17.26에 마감.

(다우 +0.75%, 나스닥 +0.88%, S&P500 +0.77%, 러셀2000 +0.67%)

미-중 정상회담: 양국 협력 가능성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현지시각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잘못 처리될 경우 미-중 양국이 충돌하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최우선 사안으로 못박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경고'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란 문제에 대해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당위성에 대한 동의를 주고받았을 뿐 이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그러나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중국의 부흥과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9월 24일 백악관으로 초청. 또 시 주석은 이번 방중에 함께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 등 미국 주요 기업인 17인을 향해 "중국의 문은 기업 활동에 더 넓게 열릴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중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는 높아짐. 이런 가운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외신은 미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와 JD닷컴 등의 중국 주요 기술기업 10여곳에 엔비디아 H200 구매를 허가했다고 보도함. 관련해 실제 납품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판매 기대를 반영한 상승세로 AI 관련주 강세를 견인함.

미국 4월 소매 판매 증가세 둔화

미국 상무부는 4월 소매판매를 집계해 공개. 미국의 4월 소매판매는 전달에 비해 0.5%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추가 상향 조정된 직전달 수치 1.6%에 비해 크게 둔화한 수치이지만 시장 예상에는 부합. 다만 이번 수치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 기준으로, 실제 소비 증가보다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해 주유소 판매가 한 달 사이 2.8% 증가했고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식료품점 지출도 증가했음. 실제 휘발유 판매를 제외한 소매판매 증가율은 0.3%에 그쳐 최근 석달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이는 실제 소비 증가가 물량 증가가 아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는 것. 여기에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저축이 줄어들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 심리가 특히 크게 약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비 호조의 지속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한편 이날 노동부가 공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에 비해 1만 2천건 증가한 21만 1천건으로 집계됐으며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직전 주 대비 2만 4천건 증가했음.

특징종목

엔비디아, 시스코, 세레브라스..AI

엔비디아(+4.43%)를 위시한 AI 관련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이며 시장 흐름을 주도함.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약 10개 중국 기업에 AI칩 H200 판매를 허가했다는 소식 속 강세. 미국 정부의 허가에도 실제 납품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정부의 허가와 별개로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공급망 규제 강화와 외산 AI 칩 의존도 축소 기조를 의식해 주문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엔비디아는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며 시가총액은 5조 7천억 달러에 근접함. 브로드컴(+5.52%), AMD(0.9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0.60%), 램 리서치(+1.26%),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0.91%) 등이 동반 상승. 다만 퀄컴(-6.14%)과 인텔(-3.63%), 샌디스크(-4.4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44%) 등은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을 반영한 차익 매물에 하락하는 등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갈림.

전거래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급등했던 시스코 시스템즈(+13.41%)도 급등하며 기술주 강세를 견인함. 시스코는 전날 발표한 회계연도 기준 3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AI 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약 4천여명의 임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회사는 회사 전반에 걸쳐 실리콘과 광학, 보안, 직원들의 AI 활용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AI 관련 신생 기업 강세도 특징적. 이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AI 칩 제조사 세레브라스 시스템즈(+68.15%)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함. 공모가 185달러에 상장한 세레브라스는 시초가에서 350달러를 넘기는 등 폭등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 세레브라스는 이번 IPO를 통해 3천만 주를 매각, 총 5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는 2019년 우버의 IPO 이후 미국 기술기업으로는 최대 규모. 세레브라스는 웨이퍼 한 장을 AI 칩 한 장으로 만드는 웨이퍼규모엔진 기술을 앞세우는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AI 모델이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추론 연산 속도가 엔비디아 GPU보다도 빠르다는 평가를 받음. 지난해 5

억 1천만달러 매출을 기록해 1년 사이 76%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으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함. 올해 오픈AI, 아마존웹서비스(AWS) 등과의 계약도 이어지고 있음.

네덜란드 AI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네비우스 그룹(+6.70%) 역시 전일 15%대 급등 이후 추가 상승함. 네비우스는 앞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84%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짓는 족족 팔리는 상황으로 올해 자본지출 가이던스를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 네비우스 그룹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코어위브(+2.61%)와 경쟁관계에 있음.

포드도 'AI붐' 수혜주?

포드 모터(+6.71%)가 전 거래일 13%대 급등 이후 추가 상승. 에너지 저장 사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일 모건스탠리는 포드가 수개월 내 대형 상업 고객, 특히 하이퍼스케일러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을 내놓음. 포드의 ESS 사업 진출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전략적 전환 움직임으로 읽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수요 부진으로 이 공장들이 유휴화하자 이를 AI붐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전력망용 ESS 생산 시설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 바클레이즈의 댄 레비 애널리스트는 포드에 대해 숨어있는 데이터센터 수혜주라 평하며 "이틀간 이어진 포드 주가의 급등은 시장의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열망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

이외 특징주-비트코인, 실적주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일명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키면서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으로 본격 편입되는데 대한 기대로 비트코인이 81,000달러를 넘김. 여전히 상원 전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호재로 반영되며 주식시장에서도 코인베이스(+5.06%), 스트래티지(+5.02%), 로빈훗 마켓츠(+5.15%) 등 디지털 자산 관련주가 상승.

바이오젠(-6.43%)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임상 2상에서 주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며 임상 3상 진입 계획을 발힘. 이에 초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하락 마감.

프리미엄 아웃도어 용품 업체 예티 홀딩스(+6.16%)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미디어 업체 버산트 미디어 그룹(+9.87%)도 콘텐츠 라이선스와 디지털 플랫폼 부문 매출 성장을 확인하며 강세. 크루즈 운영사 바이킹 홀딩스(+5.54%)는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강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혼조..장기물 금리 하락

미 국채금리는 장단기물의 방향성이 엇갈린 흐름으로 이틀 연속 혼조 양상. 영국 지방 선거

이후 키스타머 총리의 행보와 차기 총리를 둘러싼 집권 노동당 내부의 경쟁에 최근 채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강성 좌파로 분류되는 앤디 버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이 총리직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짐. 버넘 시장은 적극 재정을 강력히 옹호하는 인물로 그의 등판 소식은 영국 국채(길트) 가격 약세 요인. 이 소식에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장중 4.0% 선을 넘겼고 10년물 금리도 4.482%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형성. 다만 10년물 금리는 2bp 하락으로 돌아서 4.460%에 마감했고, 2년물 금리는 0.2bp 싱승힌 3.992%에 마감해 상승폭 축소. 30년물 국채 금리는 5.012%로 3.4bp 하락했지만 5.0%선은 사흘 연속 상회.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10%p 가량 낮은 50% 중반대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25bp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30% 초반대에서 40% 초반대로 높아졌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를 유지함.

파운드 급락..달러 나흘째 상승

미국 달러화 가치는 이날까지 나흘 연속 상승.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영국 내 좌파 성향의 차기 총리 후보자가 부상하며 파운드화가 급락한 것, 모두 달러 상승 요인으로 작용.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873으로 0.378% 상승. 파운드-달러 환율은 0.916% 급락한 1.340달러로 한 달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유로-달러 환율은 0.325% 하락.

전일 주간 거래에서 1,491.0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2.40원 상승한 1,493.4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15원)을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2.65원 상승한 1,492.50원을 기록.

국제유가 강보합 마감

국제유가는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강보합권에 마감.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5.72달러로 전일 대비 0.1% 상승했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2% 상승한 배럴당 101.7달러에 마감.

중국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 회담을 갖고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정상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함. 물론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이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유가 움직임도 제한적.

한편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일부 중국 선박이 전날 밤부터 이란 측이 내세운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고 전했고, 이란 국영방송도 전날 밤부터 이란의 허가를 받은 선박 30여척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함.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1.9% 상승.

국제 금 가격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관망 분위기 속 하락.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0.41% 하락한 트로이온스당 4,687.2달러를 기록.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전일 4%대 급등에서 4%대 하락으로 돌아서 온스당 85달러 초반대를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